

# 中国海洋大学 2021 年硕士研究生招生考试试题

科目代码: 362

科目名称: 朝鲜语翻译基础

1. 다음의 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시오.(문항당 1 점, 총 15 점)

- (1) 低碳经济 (2) 新基建 (3) 负面清单 (4) 减税 (5) 后新冠时代  
(6) 垃圾分类 (7) 物联网 (8) 弱势群体 (9) 脱贫 (10) 新能源汽车  
(11) 视频会议 (12) 疫苗 (13) 虎头蛇尾 (14) 目中无人 (15) 以身作则

2. 다음의 용어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시오.(문항당 1 점, 총 15 점)

- (1) 진단 키트 (2) 갈림길 (3) 증강현실(AR) (4) 소비진작 (5) 석권하다  
(6) 블랙 스완 (7) 홈코노미 (8) 재택근무 (9) 리더십 (10) 유니콘기업  
(11) 귀감 (12) 스마트 시티 (13) 유종지미 (14) 결자해지 (15) 칠전팔기

3. 다음의 한국어 단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시오.(문항당 2 점, 총 30 점)

- 1) 옆에서 떠드는 통에 선생님의 중요한 이야기를 그만 못 듣고 말았다.
- 2) 친구란 다투었다가도 금방 화해하는 사이야. 칼로 물 베기거든.
- 3) 열심히 하지 않고 무슨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 4) 타성은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다.
- 5) 칠팔 년 동안이나 생사를 모르다가 이렇게 만나니 왜 슬프지를 아니하겠소.
- 6) 레스토랑보다 세련된 고기집-“OO 불고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 7)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 8) 담뱃값을 500 원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 9) 그는 무료관광이란 말에 귀가 솔깃했다.
- 10) 취업 일로 속을 태우고 있다.
- 11) 한국은 정말 지리적으로 앞서지면 코 닿을 데이다.
- 12) 사공 노인은 좋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뱃머리에서 살았다.
- 13) 그는 부모님의 눈을 속여 가며 학원에 다녔다.
- 14) 그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무슨 일이든 같이 할 수 없다.
- 15) 그 약을 먹은 후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特别提醒: 答案必须写在答题纸上, 若写在试卷或草稿纸上无效。

4. 다음의 중국어 단문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시오. (문항당 3 점, 총 30 점)

- 1) 光阴似箭，日月如梭，转眼就到了毕业时候了。
- 2) 不鸣则已，一鸣惊人。
- 3) 丝绸之路凝聚了先辈们对美好生活的追求，促进了亚欧大陆各国互联互通。
- 4) 一遇到困难就打退堂鼓，这不是做事的态度。
- 5) 中国提出的全球经济治理的根本目标是推动经济全球化朝着均衡、普惠、共赢方向发展。
- 6) 一个维护和平的中国、促进合作的中国、虚心学习的中国，将为中韩关系发展带来新的机遇。
- 7) 你还不知道？真所谓灯下黑啊！
- 8) 近期新型冠状病毒疫情蔓延，给大家的生活造成了不小的影响。
- 9) 韩国有句俗语“雨后地更坚”，我相信，中国一定能战胜疫情，实现更大的发展。
- 10) 想了半天，就是想不出什么好主意。

5. 다음의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시오. (30 점)

随着中国疫情防控形势持续向好，加之今年中秋节恰逢国庆，假期延长，旅客假日出行旅游需求旺盛，国内旅游市场复苏趋势强劲。中国文化和旅游部数据显示，中秋国庆假期首日，全国共接待国内游客 0.97 亿人次，同比恢复 73.8%；实现旅游收入 766.5 亿元，同比恢复 68.9%。

韩国现代经济研究院新兴市场部部长韩载振表示，中国取得了令人瞩目的防疫成绩。尽管外部不确定因素犹存，但中国通过挖掘内需市场潜力提振经济增长，实现经济更健康发展，中国假日经济繁荣就是扩大内需的重要体现。在疫情防控常态化的环境下，促进假日经济能够充分释放居民的消费潜力。

6. 다음의 글을 중국어로 번역하시오. (30 점)

문득 창 밖에 노란 산수유 꽃(山茱萸)이 보글보글 맺혀 있는 것이 보인다. 얼마 전에 내린 폭설은 작은 시냇물이 되어 햇볕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저 연한 꽃을 피우려고 견고한 땅 속 얼음장을 깨고, 저 보드라운 시냇물이 줄줄줄 흐르려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숨가쁘게 움직인 손길이 있었던가? 한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던 내 몸도 봄의 기운을 타고 지금 힘차게 가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세포가 묵은

---

特别提醒：答案必须写在答题纸上，若写在试卷或草稿纸上无效。

것을 벗겨내고 새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심장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지, 그렇게 쏟아져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내 간장은 또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만물은 생성될 때의 활발함과 사라질 때의 적막함을 동시에 다 지니고 있다. 달이 지고 나면 다시 초승달이 떠오르고, 보름달로 완성되었다가 그믐으로 사라져 버린다.

---

特别提醒：答案必须写在答题纸上，若写在试卷或草稿纸上无效。